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2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택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안에 서명

Hochul 주지사, Newsday의 "Long Island Divided" 폭로에 대응하여 주택 차별 퇴치를 위한 9개 법안 실행 계획에 서명

법무장관실이 공정한 주택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주택기금 차별방지 제도 마련

모든 주 및 지방 기관에 공정 주택 증진을 위한 의무 부여

공정주택법 및 주거차별 관련 부동산 전문가 필수교육 강화, 부동산 전문가가 표준 취급 절차를 사용하도록 요구

주택 차별 불안사항을 위한 전용 전화선을 구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택 차별 철폐를 위한 9개의 다른 법안들을 포함한 전면적인 입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입법안은 부동산 업계에 팽배해 있는 차별과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편견 모두를 탐구한 Newsday의 "Long Island Divided"의 폭로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과 편협함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뉴욕 시민들이 집을 소유하려는 꿈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용감한 조사 기자들이 뉴욕의 주택 차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집을 소유하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새로운 법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주 정부가 공정한 주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기금 차별금지법입니다. 새로운 노력들은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판매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벌금을 최대로 올리는 것에서부터 주정부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국가 및 지방 기관들이 "확실히 더 공정한 주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Brian Kavanagh 상원 주택위원회 의장과 Steven Cymbrowitz 하원 주택위원회 의장의 노력 덕분에 통과된 이 새로운 법안들은 부동산 노동자들이 공정한 주택 업무에 정통하고 새로운 기금이 의도된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택기금 차별금지 조성, 벌금 인상, 인허가 수수료 추가

법안(S.945-B/A.6866)은 주택기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금지법의 일부는 부동산법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수한 벌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벌금 상한선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한 다음, 이 벌금의 50%를 주택 차별 방지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공정 주택 테스트를 위해 주택 차별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 보조금을 할당하는 법무장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im Gaughr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주택 시장은 인종주의, 차별, 레드라이닝의 오랜 추악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노력에만 투입되는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시장에서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는 중요한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준 제 파트너인 Kim Jean-Pierre 하원의원과,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imberly Jean-Pierr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에도 예비 주택 소유자들이 피부색 때문에 여전히 주택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양심적이지만, 이곳 뉴욕에서는 이러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쌓을 이루는 테스트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며, 문화적 역량 교육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제화하기 위해 이 입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고 이에 감사드리며, 이 중요한 일을 함께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법안(S.2133-A/A.5363)은 주 전체의 공정한 주거 활동에 사용될 부동산 중개인과 판매인의 인허가 및 재허가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중개인에게는 30달러, 영업 사원에게는 10달러가 더 추가되는 할증료는 공정한 주택 테스트 노력을 위해 주택 차별 방지 기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차별은 종종 분명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차별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ames Skouf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차별에 관한 2019 Newsday의 보도에 이어 제 동료와 저는 부동산의 약탈적 관행에 대해 1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합동 청문회를 열었고, 비협조적인 공인중개사와 그들의 회사가

증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확대받는 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입법 권고가 포함된 광범위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한 주택 구입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든 주택 구입자들은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사과정 내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회 위원장님들, 옳은 일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정부는 뉴욕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정면에 맞서 해결해야 합니다."

주 정부 및 지방 기관에 공정한 주택에 대한 의무 부여

법안(S.1353-A/A.5428-A)은 모든 주 및 지방 기관이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주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법을 시행하여 공정한 주택이 더욱 확대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공정한 주택이 확대되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법부와의 합의에 따라, 커미셔너는 5년마다 이 의무에 부합하는 중요한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2차 연도 및 4차 연도에 중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주 정부 기관과 주택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에게 공정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뉴욕은 더 이상 유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정부가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택,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위원장인 Brian P. Kavanag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들은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레드라인, 투자 철회, 명백한 차별을 통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십 년간의 체계적 불평등과 인종 차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해로운 관행들 중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불법이었지만, 차별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주택의 평등, 공정성, 통합을 긍정적으로 촉진할 만큼 거의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상원이 이 입법안을 완성시킨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다시 한 번 정의를 위해 헌신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문회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James Skoufis 상원의원과 Kevin Thomas 상원의원, 차별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안을 담당한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원내대표, 주요 법안을 후원한 Anna Kaplan 상원의원과 Jim Gaughran, 이 필수 작업에 참여해 주신 의회 동료, 패키지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맡은 Letitia James 법무장관, 아이디어와 우려를 공유한 많은 조직 및 개인 특히, 특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수년간 차별에 맞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영감을 주는 조사 저널리즘을 위해 노력한 Newsday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이 새로운 법이 주택 구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주택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택,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위원장인 Steven Cymbr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있는 지역사회들은 레드 라이닝 및 투자 취소를 포함하여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차별적 관행의 피해를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주 정부 기관과 주택 관련 프로그램과 법률을 관리하는 지역에게 공정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뉴욕은 더 이상 유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정부가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 주택 관련 부동산 전문인력 양성 확대방안 연구

법안(S.2132-B/A.5359)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필수 교육, 특히 공정 주택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합니다. 교육은 다음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분리의 유산, 불평등한 처우, 주거 기회에 대한 역사적 접근 부족
- 인종, 장애 및 기타 보호 특성을 기반으로 편의 시설과 리소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공정 주택 관련 법률
- 편견 방지 교육

이번 법안은 부동산 업계의 공정한 주거와 차별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도 확대하여 소수 주택 구입자들의 불평등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권은 가족의 부를 쌓는 주요 수단입니다.주택 구입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편견과 훼손된 관행 때문에 주거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주 전역에 공정하고 공정한 주택 기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사원을 위한 암묵적 편견 교육 필요

법안(S.538-B/S.4638-A)은 면허 갱신 과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영업 사원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관련된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Long Island Divided"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암묵적 편견이 그들의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암묵적 편견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공정한 주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sday의 "Long Island Divided" 조사 시리즈는 소수 주택 구입자들의 불평등한 대우에 관한 한 우리가 롱아일랜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판매원들이 자신의 암묵적 편견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그들이 편견을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롱아일랜드 가족들이 주택소유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호 받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문서화해 준 Newsday에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뉴욕 가정에 기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Gina L. Sillitt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택 차별을 문서화한 2019년 Newsday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가 이 끔찍할 정도로 불공정한 처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요건과 그 정신을 더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공인중개사와 영업사원들에게 최소한 2시간의 묵시적 편향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후원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미 받아야 할 공정한 주거와 차별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보완할 것입니다. Newsday의 눈부신 보도 외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20년 주 청문회에서 Newsday 기사에서 확인된 중개인들과 함께 편견이 자신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고 유색인종 뉴욕시민들이 너무 자주 직면하는 차별적 대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사원을 위한 문화 역량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

법안(S.979-A/A.844-A)은 부동산중개사 및 영업사원 자격증 교육과정에 문화역량에 대한 교과과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개인 또는 영업사원이 자격증을 갱신하기 전에 종합적인 문화 역량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 교육을 2시간 이상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부동산 업계의 차별을 줄이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정한 주거 관행을 따르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표준화된 고객 유치 절차를 적용하도록 요구

법안(S.2131-A/A.6186)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표준화된 고객 유치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영업 사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입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무부와 일반인의 검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소에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유치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표준화하여 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Judy Griff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전체에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법안은 주택 구입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조 중개인이 사무장으로서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를 감독하도록 요구

법안(S.2157-A/A.6355)은 사무장으로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부동산 전문가를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 4년 중 2년 동안 부동산업계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동일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중개인의 감독 아래 일을 택한 보조 중개사와 달리 영업장을 유지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요구되는 감독 수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무부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련 중개인이 사무장이 되기 전에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숙련된 부동산 전문가가 사무실을 적절히 감독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evin Thoma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공유하는 권리입니다. Newsday는 2019년 조사 과정에서 롱아일랜드의 소수 주택 구매자와 소수 지역 사회를 향한 불평등한 처우와 조정 및 편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감독 및 책임 조치를 강화하고 공정 주택 및 인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시고,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전달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Michaëlle C.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차별은 시행하기 더욱 어려워진 미묘하고 은밀한 관행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법안 A.6355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인의 주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든, 사무실 관리자 직속 지사에서 근무하든 관계없이 부동산 중개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토마스 상원의원과 이 책임 방안에 대해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제화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택 차별 불만사항을 위한 전화선 구축

법안(S.3437-C/A.2300-C)은 주택 차별 불만사항을 위한 전용 전화선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화선은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에 의해 운영되며 주거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전화선을 통해 주택차별 사건 신고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